

실적 늪에 빠진 손보사 '빅5'... 메리츠만 웃었다

손해보험사 '빅5' 실적 발표
대형 손보사 투자릿수 감소세
메리츠화재 유일하게 증가세
공격적인 영업으로 실적 상승



손해보험사 '빅5'가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곳은 메리츠화재가 유일했다.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은 투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반면 메리츠화재만 선방한 것. 자동차보험 등 손해율이 큰 사업을 줄이고 장기인보험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상반기 순이익이 1361억원으로 전년 동기(1320억원) 대비 3.1% 늘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9%, 3.5% 증가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 빅

5 중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가 손보사 빅5 중 자산규모로는 5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다.

손보사 1위인 삼성화재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42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손보사 빅5 상반기 실적)

손보사	당기순이익	매출액
삼성화재	4261억원(▼36%)	9조3323억원(▲2.1%)
현대해상	1638억원(▼36.1%)	6조5907억원(▲2.1%)
DB손해보험	2063억원(▼31.3%)	6조3869억원(▲2.8%)
KB손해보험	1662억원(▼11.6%)	5조1384억원(▲3.9%)
메리츠화재	1361억원(▲3.1%)	3조8592억원(▲11.9%)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DART

36.0%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전자 주식 매각 이익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해도 22.3%나 감소했다.

업계 2, 3위인 현대해상과 DB손보도 각각 36.1%, 31.3% 하락한 1638억원, 206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KB손보도 16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다.

대형 손보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한 영향이었다.

삼성화재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81%에서 87%로 6%포인트 상승했다. 현대해상은 86.5%, DB손보는 86.6%, KB손보는 86.8%, 메리츠화재가 84.7%에 달한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 대신 장기인보험 판매에 집중하며 실적 개선에 나선 것이 주효했

다. 대표이사인 김용범 부회장은 취임 이후 공격적인 영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지난해 11.1%에서 올해 8.2%까지 줄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차별화된 전략을 쓴 셈이다.

대신 장기인보험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상반기 장기인보험 매출에서 78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32.9%(193억원)나 성장했다.

자산운용에서도 빛을 봤다. 메리츠화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17년 4.3%, 2018년 4.0%, 올해 1분기와 2분기 4.7%와 5.3%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손보업계 평균 운용자산이익률인 3.4%인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의 공격적인 영업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민병두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세미나
가상자산 법제화 방안 모색 주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내 여건에 맞는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과 거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세미나에서 "신뢰받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명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한국형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허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입법 및 규제 동향과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블록

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의 양성화 기조에 따라 그 범위와 거래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 됐다. 프랑스 의회 또한 지난 4월 보험업체가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고, 암호화폐 투자에 노출되는 종신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됐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구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금법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총 3건의 개정 발의안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규정하며 거래시 이름·계정정보·물리적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송수신자의 정보를 상호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특금법은 이같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상호 소통을 통한 가상자산 법제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디지털 혁신리더'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이대훈 행장, 디지털혁신 리더와 만나다

(NH농협은행)

디지털 혁신에 대한 소통 시간 가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산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이대훈은 행장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디지털혁신리더'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혁신리더와 은행장과의 간담회와 함께 외부강사를 초빙해 '디지털 혁신의 창조적 방법'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43인의 디지털 혁신리더는 본부 부서별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직원을 1명씩 선발해 구성됐다. 이들은 ▲디지털 협업니즈 발굴 ▲디지털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현업 부서와 스타트업의 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농협은행의 디

이 행장은 디지털 혁신리더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디지털 선도는 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디지털 문화 확산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t@

KB국민은행-타이어뱅크 자금관리 체계 수립 '맞손'

금융업무 전반에 시스템 기반 마련



(오른쪽부터)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신덕순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세종시 여진동 타이어뱅크 신사옥에서 타이어뱅크와 '맞춤형 자금관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과 신덕순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이전까지 수기로 관리했던 타이어뱅크의 자금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또 ▲대금수납 업무 간소화 ▲내부통제 기반의 대금지급 관리 ▲현금흐름(Cash-Flow) 실시간 모니터링 및 법안카드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프놈펜상업은행

상반기 당기순익 100억

JB금융그룹의 손자회사인 프놈펜상업은행(PCBank)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JB금융은 13일 캄보디아에 진출한 프놈펜 상업은행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실적으로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수 첫해 기록한 30억원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프놈펜상업은행의 올 2분기 말 총자산은 9448억 원으로 전년 동기(7845억 원)보다 20.4% 증가했다. 총대출과 총수신 역시 각각 5183억 원에서 6867억 원, 6410억 원에서 7372억 원으로 각각 32.5%, 15%씩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6월 시중통화량 전년비 6.7% 올라

정부 재정집행 확대 영향

지난 6월 시중 통화량 증가세가 소폭 확대됐다. 정부의 재정집행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6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의통화(M2)는 2798조8000억원(평잔·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전월(계정조정계열 기준) 대비로도 0.7% 늘어나며 전월(0.4%)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됐다.

M2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현금통화를 비롯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

(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유입 등의 영향으로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증권도 채권형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3조4000억원 늘었다.

또 2년 미만 금전신탁과 요구불예금은 각각 1조9000억원,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기타금융기관은 4조7000억원, 기업부문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부문의 경우 정부의 재정집행 확대 등으로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늘었다. /김희주 기자